

# 함평천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 선포식'

이병용 부군수·윤앵량 군의장·상인회 등 20여 명 참석

“명품시장 탈바꿈 기대...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함평천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 선포식’이 지난 2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 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선포식에는 이병용 부 군수, 윤앵량 군의회 의장, 상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의 문화관 광형 시장으로의 도약을 축하하고, 육성 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상인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문

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 경과보고, 도약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용 부군수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함 평천지 전통시장이 명품시장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행정에서도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천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 성사업’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



함평=김광준 기자

# 목포자연사박물관, 7일까지 아주 특별한 하루 행사 개최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아주 특별한 하루 ‘꿈꾸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박물관 일원에는 높이 12m에 달하는 실제 크기로 제작된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초대형 공룡 캐릭터 별론이 가랜드 장식과 어울려 다채로운 포토존이 조성되고 아간에는 불을 밝혀 박물관을 비추 예정이다.

박물관 야외무대에서는 마술공연 ‘구러기 매직쇼와 OX 퀴즈, 캐릭터 인형 깜짝 퍼포먼스 등 공연과 이벤트가 행사 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며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 풍경 만들기, 고무신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준비된다.

또한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기획전 ‘우리생명, 빛과 선으로 담아내다 with 그래 피티&드로잉’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점차 사라져가는 위기 속에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세밀화와 미디어아트를 통해 담아낸 전시로, 생물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전시다.

이번 행사는 2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남권 뮤지엄페어의 pre(프레)행사로 본 행사는 올해 전국제전 개막에 맞추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자연사박물관 일원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민선8기 새로운 도약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가져

영광군은 지난 2일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의회의원과 실과소장 그리고 자문위원 장석주 호남대 교수 등이 참

석하여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1차 보고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보완하고, 영광군만의 고유한 먹거리 사업 분야에 대해 (재)광주전남연구원 박용희 정책지원단장은 5개 분야 17개 핵심사업을 제

시했다.

참석자들은 “타 시군 사업과의 차별화된 대표사업 1~2개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며, “24~25년 국비 건의사업과 대형 중장기 사업을 구분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강종만 군수는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

고, 실현가능한 전략사업 발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10~20년 우리 군을 이끌어갈 대표 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6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정하고, 24~25년 국비확보 및 중장기 미래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영암농산물 수출 더 늘린다

영암군 농산물 수출 430만 불 달성...올해는 600만 불 목표



영암군이 2023년 농산물 수출액 600만 불 달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영암군의 농산물 수출액은 430만 불, 수출물량은 약 1,381톤에 달한다. 이는 2021년 280만 불 대비 53%의 성장을 일궈낸 수치.

영암의 배, 녹차, 파프리카, 고구마, 사인머스켓 등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을 넘어 미국, 핀란드, 독일 등으로 판로가 확장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2022년 803톤이 수출된 영암 배는 농산물 총수출량의 58%를 차지하며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영암군은 그동안 재배기술 컨설팅, 품질 규격화, 검역 요건 준수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기업과 농가의 농산물 수출을 도왔다.

수출 증가세에 고무된 영암군은 올해 농산물 수출 목표치를 600만 불, 한화 약 72억원으로 책정하고, 실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영암군은 소모품 자재구입비 지원, 고부가 가치 수출 적합 가공식품 발굴 정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자재구입비 지원은 내년에 폐지될 수출물류비 지원 정책에 대비하는 발 빠른 조치여서 수출기업과 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남도장터US’, ‘전남농식품상설매장’ 등도 활용해 수출 판로도 다양화, 안정화한다는 전략이다.

영암군은 수출기업과 농가 간담회도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영암군의 수출지원사업 홍보, 신규 참여 농가 발굴, 수출 적합 전략 품목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농가 및 수출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유통과 판로 등 수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군, 의약품소·의료기기 판매업 65개소 지도점검 실시

재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무안군은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의약품소 33개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32개소 총 6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장 등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했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약품 등록증·약사 면허증 게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및 의료기기 진열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및 허위 과장 광고 게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게시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생 대상 학교, 학원가 주변 “집중력, 기억력 향상” 빙자 의약품 등 광고 행위와 시음 음료 배포 여부에 대해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보건소 의약품팀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했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 재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흑산홍어축제 5→8일 연기...기상 악화 여객선 통제

신안군은 당초 5~6일까지 흑산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년 흑산홍어축제'를 8~9일까지 연기해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안군은 당초 5~6일까지 흑산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년 흑산홍어축제'를 8~9일까지 연기해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일 비와 함께 2~4m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로 흑산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일정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흑산홍어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등 시식행사와 ‘홍어잡이 어선 풍어제, 흑산도 아가씨 노래자랑, 흑산홍어 깜작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5월 흑산도 홍어축제를 시작으로 깡다리, 낙지, 6월 병어, 뱀뱀이, 간재미, 8월 민어, 9월 왕새우, 불불락, 우럭, 10월 새우젓 등 계절 시기에 맞춰 신안 청정 수산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